IBK경제연구소 | 경제분석팀 책임연구원 송주경 jk24031@ibk.co.kr ☎ 02-729-7385

7월 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

2016.7

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7월 수출입 중소기업 이슈조사 결과

○ 수출입 중소기업의 절반은 올해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거나(36%) 당초 계획보다 축소(14%)할 전망(유지 49%, 확대 1%)

○ 브렉시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'수출이 감소할 것'(49%)이라고 응답한 기업과 '수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'(48%)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비슷하게 나타남(7.15일 기준)

(1) 설비투자

□ (계획 대비 연간 설비투자) 수출입 중소기업의 절반은 올해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거나(36%) 당초 계획보다 축소(14%)할 전망(유지 49%, 확대 1%)

○ 업종별로는 선박류, 섬유·의류 등에서 설비투자를 미실시 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
□ (전년 대비 동종업계 설비투자 전망) 동종업계 설비투자 전망에 대해 '작년보다 축소'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46%로 가장 많았고, '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것'으로 전망한 기업도 20%를 차지

○ '작년 수준 유지'는 28%, '작년보다 확대'는 6%로 나타남

- 대부분 업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전망했으나, 자동차 부품과 전자·전기 부문에서 설비투자 확대를 예상

-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전기 자동차 확대, 신차 출시 및 일본·독일 자동차의 연비조작 파문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상반기 수출입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타업종 대비 양호한 모습

□ (상반기 대비 하반기 설비투자 계획)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인 기업은 42%, 상반기보다 축소할 계획인 기업은 11%

○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계획 중인 기업은 35%였고, 상반기보다 확대할 계획인 기업은 12%를 차지

□ **올해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'경기 불확실성'(71%)** * 복수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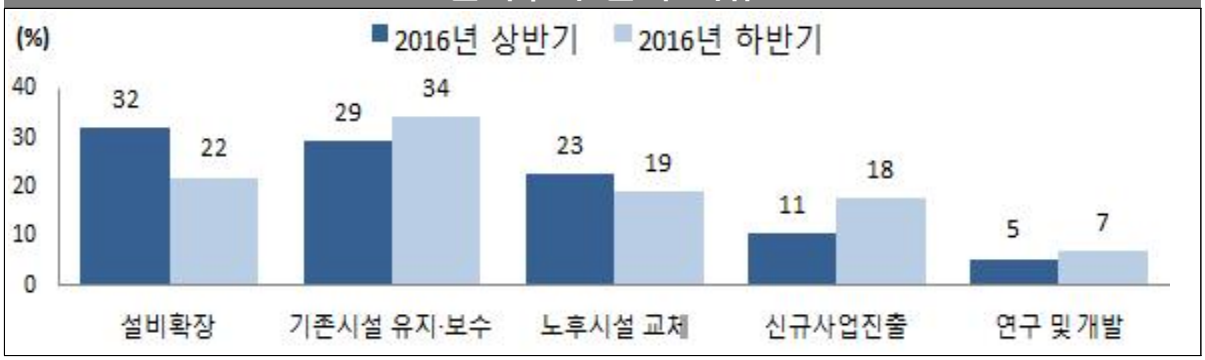
○ '국내 수요 부진'(25%), '수출 수요 부진'(23%)이 뒤를 이어 올해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것임을 반영

○ 그 외 '자금조달 문제'(18%), '기존 설비 과잉'(14%) 순

□ **상반기에 설비투자를 실시한 사유는 '설비확장'(32%), '기존시설 유지 및 보수'(29%), '노후시설 교체'(23%) 등**

○ 하반기에는 '기존시설 유지 및 보수'(34%)와 '설비확장'(22%), '노후시설 교체'(19%)를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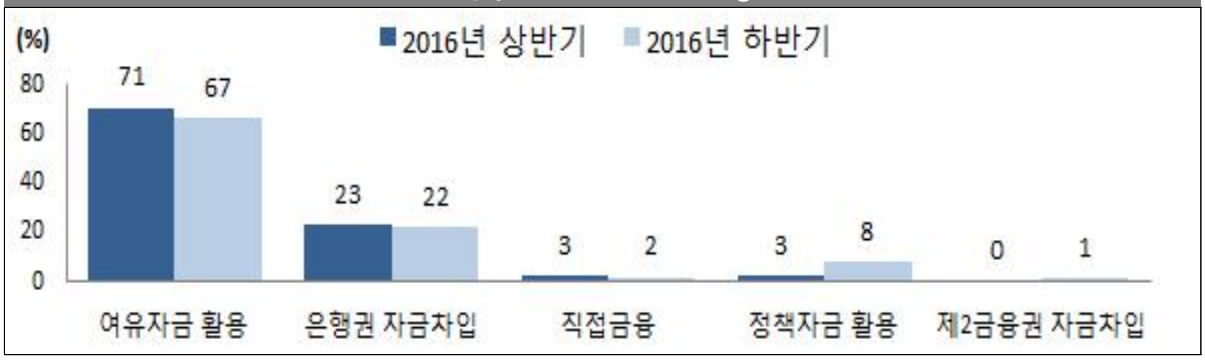
설비투자 실시 사유



□ **상반기 설비투자 자금의 주 조달방법은 '여유자금 활용'(71%), '은행권 자금 차입'(23%) 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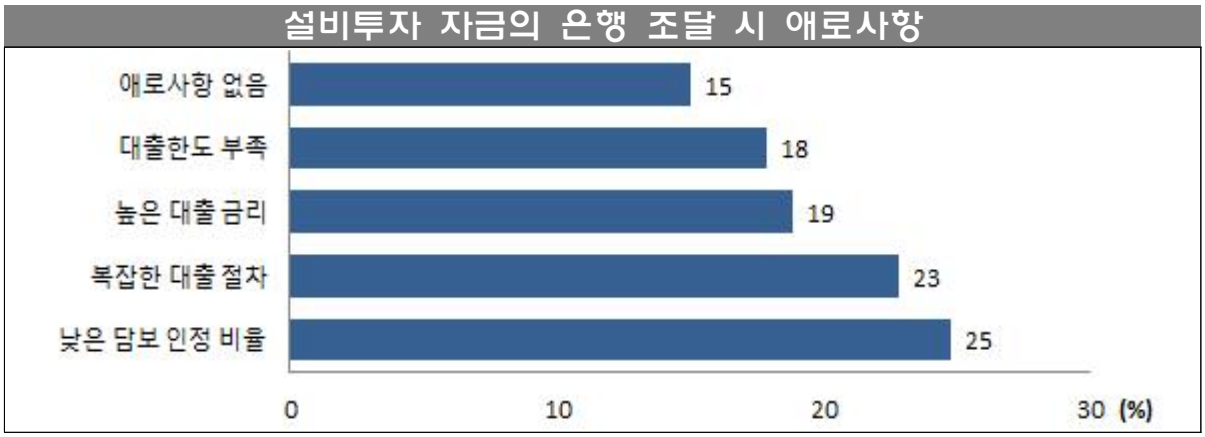
○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'여유자금 활용'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감소(△4%p)하고, '정책자금 활용'을 이용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(5%p)할 전망

설비투자 자금조달 방법



○ 은행권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은 ‘낮은 담보 인정 비율’(25%)과 ‘복잡한 대출 절차’(23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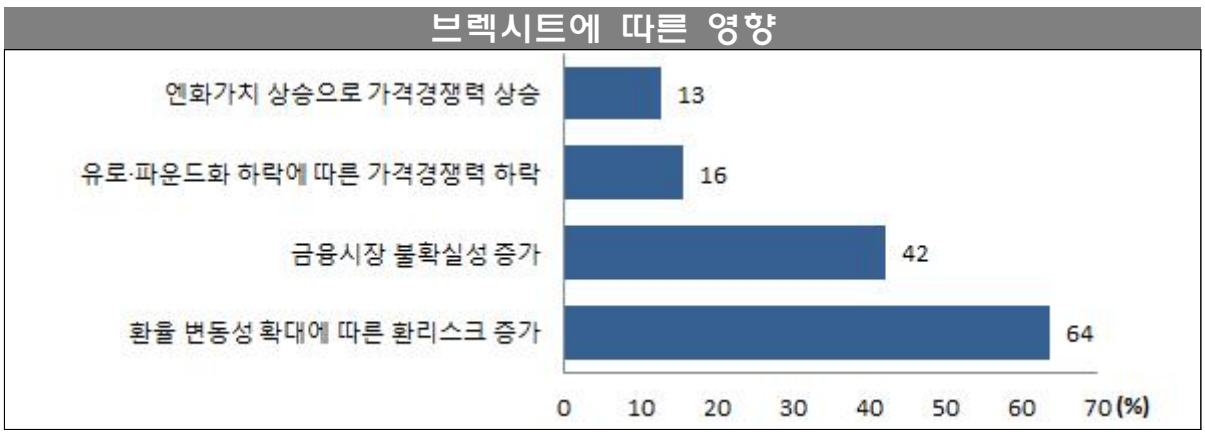
- 그 외 ‘높은 대출 금리’(19%), ‘대출한도 부족’(18%) 등이 뒤를 이음



□ 브렉시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‘수출이 감소할 것’(49%)이라고 응답한 기업과 ‘수출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’(48%)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비슷하게 나타남(7.15일 기준)

○ 수출 중소기업은 ‘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리스크 증가’(64%), ‘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’(42%)를 우려 * 복수응답

- 반면, ‘안전자산인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’(13%)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


주 : 복수응답

< 조 사 개 요 >

1. 조사기간 : 2016. 7. 13 ~ 2016. 7. 15 (3영업일간)
2. 조사대상자 : 당행 거래 중소기업 150개사
3. 응답 비율 : 69%(104개사)